

고려초 복식기록에 관한 고찰 - 광종 · 경종 · 성종대를 중심으로 -

전혜숙⁺ · 김혜정^{*}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동아대학교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Records of Costume of the Early Koryo Period - Focus on the Reign of King Gwangjong · King Gyeongjong · King Seongjong -

Hea-Sook Chun⁺ · Hye-Jung Kim^{*}

Prof., Dept. of Fashion Design, Dong-A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and Textile, Dong-A University^{*}

(2012. 11. 24. 접수; 2012. 12. 31. 수정; 2013. 1. 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kinds and features of costume and fabrics of the early Koryo period which are mentioned in the records of costume system, royal presents and diplomatic articles at that time ranging from the reigns of king Gwangjong to king Gyeongjong and to king Seongjong.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11th year of king Gwangjong's reign, the official costume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reflected the royal will to independence as an imperial nation. That system also became the basis of the official wage system in king Gyeongjong's reign. In the reigns of king Gwangjong and king Gyeongjong, the monarch granted official uniforms to persons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directly connecting with new bureaucrats and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Those uniforms were usually worn at a banquet where the monarch and subjects participate together in the early Koryo period.

In the reign of king Seongjong, costume and fabrics were positive means of realizing political Confucianism as they were used for bureaucrats who advanced to official position through the state examination. Records issued at that time explain that the monarch presented costume and fabrics in an effort to getting along with officials and civilians of different classes as the state and the royal authority stabilized.

Found in the records released in the reigns of king Gwangjong to king Seongjong, the kinds of costume or fabrics at that time include jikseongeuio, gap, yongeu, seupeui, gyegeum baekcheop, geumeunseon gyegeumpoyok and po. The techniques of manufacturing armors in the early Koryo period were probably advanced since the item was a craftwork presented to the court in the reigns of kings Gwangjong and Gyeongjong. Presumably, baekcheop was a kind of hemp and po, Koryo's native hemp cloth.

Key Words: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costume system(백관공복제정), Grant of official uniforms(공복사여), Gyegeum baekcheop(계금백첩), Jikseongeuio(직성의오), Armor(갑옷)

I. 서론

태조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高麗를 건국한(918년) 후 18년이 지난 936년에 後三國이

Corresponding author ; Hea-Sook Chun
Tel. +82-51-200-7333, Fax. +82-51-200-7335
E-mail : hschun@dau.ac.kr

※ 이 논문은 2013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후지원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통일되었으나, 통일초기에는 후삼국의 정치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고려내의 통합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이후 光宗(950-975년), 景宗(976-981년), 成宗(982-997년)대는 국내적으로는 통일왕조를 지속 시켜나갈 왕권의 강화와 함께 일부 개국공신들의 편파적인 세력의 분산과 약화를 위해서 다양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실시, 백관의 새로운 공복제정과 그에 따른 田柴 지급 등 유교적 중앙집권체제로 완비시켜 나갔다.

이 시기 국외상황은 광종원년(950) 중원의 後周가 건국되자 후주 연호를 사용하고 후주 世宗의 개혁정책을 도입하는 등 후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광종11년(960) 宋 건국 후에는 송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송과도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성종12년(993) 거란의 침입으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협공으로 거란을 물리치자는 고려의 제의를 송이 거절하면서 송과는 국교가 단절되었다.

유교적 중앙집권체제가 완비되어가고 왕권강화와 중원의 변화가 많았던 이 시기 <고려사>를 비롯한 다양한 고려 문헌과 <구오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국 문헌의 기록에는 복식제도 및 관련제도에 따른 봉록체계, 관료, 왕의 하사품, 주변국의 외교관례에 복식관련 품목이 중요한 물목이 되고 있으니, 이 시기 복식 기록을 통해 고려초 국내, 국외상황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고려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복식사분야에서는 고려초기의 태묘제례복식(이민정, 2002)과 공복제(임경화, 2006, 2008), 고려시대의 관복(서옥경, 1992; 이승해, 2001, 2011)과 직물(박순지, 1987; 조효숙, 1992) 및 복식에 미친 주변국가와의 영향력과 상관성 관계를 비교(유희경, 1974; 양우원, 2002; 임명미, 1992, 1993) 고찰하였고, 元 간섭기 복식과 복식문화(김문숙, 2000; 안정희, 2004; 안현주, 2011)와 고려유물에 나타난 복식(채금석, 1987; 김진희, 1996; 옥명선, 2007)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으며, 사학분야에서는 고려시대 향리공복(은영지, 1987; 강은경, 1999)과 복식금령(김연주, 1999) 및 관복(김윤정, 2009)을, 예술학 분야에서

는 불화에 나타난 복식과 문양(정국진, 2006; 지미령, 2001; 천혜원, 2011)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고려와 중국 문헌 등에 고려초기의 복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식 내용들만이 발췌되어 연구 되어졌으므로, 고려와 중국 문헌의 세가, 지, 열전을 비롯한 복식과 관련된 모든 문헌 기록들을 발췌하여 고려초 국내, 국외상황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의 시기구분은 고려가 처했던 대내외적 입장과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려 초기나 전기의 구분을 볼 때 史學 분야에서는 고려전기를 고려 건국에서 선종까지(남인국, 1999; 신영식, 1983; 정용숙, 1988) 또는 태조에서 예종까지로 보기도 하고(김삼기, 1999), 태조에서 성종까지를 고려의 귀족사회의 성립시기로 보기도 하며(박용운, 1991), 服飾史 분야에서는 태조에서 강종까지를 오대·송 복식의 영향기로(유희경, 1975), 태조에서 경종까지를 고려초기로(임경화, 2006), 고려전기를 태조에서 선종까지(이승해, 2001) 또는 태조에서 고종까지로(서옥경, 1992) 보는 등 연구의 관점에 따라 시기 구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신라말·후삼국으로부터 고려의 지배체제가 일단 매듭지어지고 유교적인 中央集權體制가 완비되는 성종대까지를 고려초기로 보아 이를 신라 복제를 계승했던 태조·혜종·정종대와, 그 이후인 광종·경종·성종대의 두 시기로 나누고 고려의 복제가 새로 제정, 시행되는 시기인 광종·경종·성종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광종대부터 경종, 성종대까지 고려가 처한 대내외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고 둘째, 다양한 문헌에 나타난 복식과 직물관련 기록을 발췌하여서 재위왕대별로 복식제도제정, 왕의 하사품, 외교관련 복식 등으로 분류한 후 고려초 국내, 국외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복식과 직물의 종류 및 특징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고려초 광종, 경종, 성종대 <고려사>,<고려사절요>,<동국통감>,<동사강

목>,<증보문헌비고>,<구오대사>,<송사>,<오대회요>,<책부원구>,<옥해> 등의 고려와 중국 문헌에 기록된 복식관련 기록을 발췌하여 고찰 분석하고자 하며, 고려초 문헌을 제외한 기타 史料의 부족으로 문헌연구로 제한한다.

II. 고려초 광종-성종대 국내외 시대상황

태조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고려를 개국한지(918년) 18년 후에 신라 경순왕과(935년) 후백제 견훤이 항복(936년)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었지만 14년이 지난 4대 광종대(950-975)에 이르러서도 각 지역마다 후삼국 잔재의 호족세력과 개국공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종은 미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정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호족들의 사병보유를 약화시키고, 개국공신들의 관직 독점, 토지, 노비 집중 보유를 막기 위해서(황선영, 2002) 광종7년(956) 노비안검법과 9년(958) 과거제로 등용된 신진세력을 투입하여서 호족과 개국공신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켜나갔다.

또한 11년(960)에는 순군부를 군부로 개편하여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군권을 박탈하여 왕권에 귀속시키고, 내군을 장위부로 개편하여 시위군을 강화하며, 물장성을 보친으로 개편하여 시위군 증가에 따른 군수儲積을 확보하였으며(유병기, 1995) 국왕에게 병권을 집중시키는 군제개혁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고려사>세가2, 광종11년(960)에는 신진관료 評農書史 權信이 大相 俊弘, 佐丞 王同 등을 역모를 꾸민다고 참소하자 귀양 보냈고, 밀고자들이 많아지면서 감옥이 넘치자 임시감옥까지 설치할 정도로 왕의 의심이 많아져서 왕실 일족들도 많이 잡혀 죽었고, 심지어 왕의 아들 佖도 의심을 받을 정도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관직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公服制度를 제정하고, 고려왕을 황제로 稱하며, 개경을 皇都, 서경을 西都라 改稱하였고 16년(965)에는 장자 주를 太子로 책봉하였으니, 이는 고려국의 위상과 국제적 지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조치였

다고 추측된다.

이 시기 변화가 많았던 국제정세 속에서 광종의 대외정책을 보면, 원년(950)부터 10년(959)은 후한을 이은 후주와 적극 교류하였다.

후주 세종의 왕권강화 개혁정책을 도입하면서 2년(951)에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4년(953)에 후주로부터 고려왕 책봉을 받았으며, 광종 재위 초부터 10년간 양국의 사신이 내왕할 때에 조공·사여 형식으로 공식적인 사행물품이 오고감은 물론 비공식적 교역물품도 많았고(국사편찬위원회 4, 1984), 종류도 다양했다.

<고려사>에는 광종9년(958) 후주에서 비단(帛) 수천필로 고려산 銅을 무역해 갔고, 10년(959) 고려에서 동 5만근, 수정 4천顆를 후주로 보내고, 귀화인 쌍기와 부친 쌍철을 관리에 임명하였으며, 별서효경, 월왕효경신의 등 고려의 서적을 후주에 보내는 등 물질적 교류뿐 아니라 인적·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이후 11년(960) 후주의 금군총사령관 조광운이 중원을 통일하여 송을 건국하자, 13년(962)에 사신을 통해 송에 토산물을 보내고, 14년(963) 송의 연호 사용과 고려왕의 책봉을 위해 송의 사신이 고려에 내방하며, 16년(965), 23년(972) 송에 토산물을 보내는 등 송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주와 달리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북방의 거란과는 태조25년(942) 국교를 단절한 이후 광종대에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975년 광종이 병사하자 즉위한 경종(976-981년)은 즉위 즉시 대사면령을 내려 광종대 숙청당한 호족공신들이 세력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복수를 허용함으로써 광종대의 정치세력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執政 王誥의 天安府 院郎君 살해를 계기로 복수를 금하고 그를 추방하여 원년(976) 11월 집정직을 좌우로 분리시키면서 정치권력을 분산시켜 왕권을 안정시켰다(노용필, 1998).

원년(976)에 始定田柴料를 제정하여 호족세력뿐만 아니라 신진세력들에게도 경제적 입지를 마련해주었고 2년(977)에는 개국공신과 지방 성주들에게도 勳田을 지급하여(김갑동, 2005)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였으며, 2년 親試를 주관하는 등 신진관료와 연계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경종원년(976)·4년(979) 송의 책봉을 받았고, 2년(977)·3년(978)에는 양국의 왕자가 서로 예방할 때 말, 갑옷, 병기 등을 송에 보내고, 송에 거의 매년 사절을 파견하는 등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경종대는 광종대보다 송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송 태종(976-997)은 979년(경종4년) 오대 10국의 하나인 後晉이 건국 당시(936년) 거란에 양도한 연운 16주 지역을 회복하려는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거란이 지속적으로 송을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송은 고려와 긴밀한 관계를 거란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고려왕자가 송에 내방 시에 말, 갑옷, 무기 등을 가지고 간 것은 송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송이 거란과의 대치관계에서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고려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982-997년)대는 지방호족의 자제를 개경의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등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인재를 양성하면서, 거의 매년 과거제를 시행하고, 親試도 실시하면서(김갑동, 2005) 관료와 인재 포상에는 복식관련 물품을 직접적으로 주면서 신진인재를 발굴, 등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圓丘에 배향, 神農에 제사, 太廟를 건축하면서, 불교행사인 팔관회를 폐지하는 등 유교적 국가의례 정비(고승남, 2002)와 함께, 내사문하성, 상서6부를 설치하고, 전국 12개 주에 외관을 파견하여서 중앙과 지방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완비시켜 나갔다.

이 시기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원년(982) 송에 사절을 보내고, 2년(983) 송의 책봉을 받고 공식적 외교와 조공무역, 사무역이 활발해지고(백승호, 2006) 송에서 大廟堂圖·大廟堂記·社稷堂圖·社稷堂記·文宣王廟圖·祭器圖 등 유교제례 관련도서, 9년(990) 대장경 등 불교서적을 보내왔고, 11년(992) 王彬, 崔罕 등이 송 국자감에 입학·급제하여 관리에 임명되는 등 다양한 문화적·인적교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2년(993)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자, 13년(994) 송에 군사지원을 요청하나 거절하였으므로, 이후 송과는 국교를 단절하였다.

거란과의 관계를 보면, 5년(986) 거란이 먼저 화친을 청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12년(993)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자 內史侍郎 徐熙를 보내 화친을 청하면서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하였고, 이후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13년(994) 거란 연호를 사용, 기생과 악기를 거란에 보냈고, 14년(995) 토산물, 매(鷹)를 보내면서 소년 10명을 보내서 거란어를 배우게 하였으며, 15년(996) 거란의 고려국왕 책봉을 받으니, 성종재위 후반은 거란과 다양한 문화적·인적교류가 있었다.

Ⅲ. 고려초 광종-성종대 복식기록

이장에서는 고려사 관련 문헌에 기록된 광종-성종대 복식기록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종대(950-975) 복식기록

1) 복식제도 제정관련 기록

<고려사> 세가2 광종7년(956) “後周 遣…薛文遇 來加冊王…仍令百官衣冠 從華制.”

<고려사> 세가2 광종11년(960) “定百官公服.”

<고려사> 지26 여복 관복 공복 “公服光宗十一年三月定 定百官公服 元尹以上紫衫中壇卿以上丹衫都航卿以上緋衫小主簿以上綠衫.”

<동사강목> 6 광종11년(960) “周冊使薛文遇之來 今百官衣冠從華制至是定百官公服, 元尹以上紫衫中壇卿以上丹衫都航卿以上緋衫小主簿以上綠衫尊卑上下等威.”

복식제도 제정은 두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광종7년(956) 후주가 將作監 薛文遇를 보내 고려왕으로 책봉하자 백관의 의관제도를 중국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11년(960) 백관의 공복제도를 제정하였다.

광종7년(956) 의관을 華制로 따르도록 했다는 것은 후주의 제도였다고 볼 수 있으니, 태조대 이후 관복제도는 新羅의 복제를 계승했고, 신라제 역시 <三國史記>雜誌, 3 色服에 唐의 제도를

<표 1> 백관공복의 복색표

시대	공복(복색)	제정시기	내 용	출 처
신라	자,비,청,황	법흥왕	法興王制 自太대角干至大阿浪紫衣 阿浪至級浪緋衣 亦牙笏 大奈麻奈麻青衣大舍至先沮知黃衣.	<삼국사기>권33, 잡지2, 색복.
고려	자,단,비,녹	광종11년	公服光宗十一年三月定 定百官公服 元尹以上紫衫中壇卿以上丹衫都航卿以上緋衫小主簿以上綠衫.	<고려사>권72,지26,여복, 관복 공복
당	자,비,녹,청	태종 정관4년	貞觀四年又制 三品已上服紫 五品已下服緋 六品七品服綠 八品 九品服以青 帶以鍮石.	<구당서>권45, 여복25
송	자,주,녹,청	송	公服 凡朝服謂之具服 公服從省 今謂之常服 宋因唐制 三品以上服紫 五品以上服朱 七品以上服綠 九品以上服青. 其制 曲領大袖 下施橫 束以革帶 幘頭 烏皮鞋 自王公至一命之士 通服之.	<송사>권153, 지106,여복5

모방하여서 중국제도와 다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다시 화제로 바꾸었다는 것은 고려 왕 책봉의 외교적 답례였다고 볼 수 있다.

<五代史>는 後梁(907-922), 後唐(923-935), 後晉(936-946), 後漢(947-950), 後周(951년-959년)로 이어지는데, 거의 모두 약 10여년 정도 짧게 존속한 국가로서 <오대사>에는 天文, 曆, 五行, 禮, 樂, 食貨, 刑法, 選舉, 職官, 郡縣志는 있지만 輿服志가 없으니 관복제도를 정비할 여유 없이 당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의 관복제도는 <舊唐書>45, 지25 여복, ‘정관4년 제도가 3품이상 紫, 5품이하 緋, 6·7품 綠, 8·9품 靑’이니, 광종7년 화제는 위의 제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4년 후 광종11년(960) 백관의 공복제도를 다시금 제정하고 있으니, 광종 11년(960)은 후주가 멸망하고 송이 건국된 해인데, 같은 해에 광종은 고려국을 황제국, 수도 개경을 황도로 칭하게 되니, 11년(960) 복식제정 역시 국내외 상황이 맞물려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

<송사>권153, 지106, 여복5에는 ‘제신의 공복은 당제에 따른 것이며, 3품이상 紫, 5품이상 朱, 7품이상 綠, 9품이상 靑’으로, 緋와 朱는 둘 다 붉은 계통으로서 당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백관공복의 복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권72, 지26, 여복, 관복, 시조지복조에는, 고려 건국초 왕의 복색은 柘黃袍를 사용하였는데, 문종12년 4월 <律曆志>, <唐史>, <開

元禮> 등을 상고하여서 왕의 복색은 紅, 黃외에는 쓸 만한 색깔이 없으며, 왕의 예복은 黃, 赭, 絳을 쓰고, 宴饗小會 등에는 적당히 변경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고려초 신라제인 자·비·청·황 중 황은 곧 왕의 복색이므로, 황제국을 지향한 광종이 황색을 하급관리 복색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며, 광종11년(960) 자·단·비·녹은 당의 자·비·녹·청, 송의 자·주·녹·청과 다른 제도로서, 황제국을 지향하는 자주적인 광종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본다.

2) 공복사여 기록

<고려사절요> 2 광종15년(964) “賜金策…王御天德殿 宴群臣命策釋褐 賜公服赴宴.”

광종대는 정치적 안정기였지만 호족·개국공신들의 정계 장악을 7년(956) 노비안검법으로 세력을 약화시키고, 9년(958) 과거제 실시로 왕권을 받쳐줄 신진관료를 선발하였으며, 11년(960) 황제국, 황도 천명과 관복제도 제정으로 왕권을 든든히 세워나갔는데, 당해년부터 이후 마지막 재위시까지 호족·개국공신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시작하였다.

광종이 연회에 참석시킨 후 갈옷을 벗게 하고 공복을 사여한 金策은 <고려사>권73, 지27에는 광종15년3월 翰林學士 趙翼이 지공거로서 실시

한 과거제 4차시 진사과에 합격한 자인데, 나주 광양인으로 후백제 계통의 인물(이관영, 1968)로 추측된다.

그의 생애는 기록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급제한 후 왕이 친히 공복을 사여하고 연회에 참석케 한 것은 급제자에 대한 국왕의 관심과 총애의 표현이며, 고려 초 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연회에 공복을 착용하였다고 본다.

당시 입었던 공복은 고려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고려도경>에도 송 사신 서공이 고려에 왔을 때 고려복식이 송의 제도와 같고 송 초기의 복제는 당제를 따랐음을 볼 때, 광종대 공복은 曲領大袖에 橫欄, 革帶, 幘頭, 烏皮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후주, 송과 관련된 복식기록

앞장에서 살펴본 바 광종대는 초기 10년간은 후주, 11년부터 26년까지는 송과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책부원구>, <오대회요>, <고려사>, <동국통감> 등에 후주와 교류시에 복식기록이 있고, 송과는 토산물인 방물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부원구> 권980 외신부 通好 후주 태조2년(952) “高麗使陳參等到關見勅有司賜酒食衣服.”

<책부원구> 권972 외신부 조공5 광순2년(952) “高麗權知高麗國王王昭, 遣使廣評侍郎徐逢等九十七人, 來朝貢.”

<고려사> 세가2 광종6년(955) “遣大相王融 如周 獻方物. 遣廣評侍郎笏質如周賀即位.”

<동국통감> 2 광종9년(958) “賚帛數千匹來市銅.”

<오대회요> 권30 주 현덕5년(958) “命尙書水部員外郎韓彥卿 尙輦奉御金彥英使於高麗 因命賚帛數千匹就彼市銅 以備鑄錢之用.”

<고려사> 세가2 광종9년(958) “周遣 尙書水部員外郎韓彥卿 尙輦奉御金彥英 賚帛數千匹來市銅.”

<책부원구> 권976 외신부 褒異3 후주세종6년(959) “高麗國王王昭 遣使臣王子佐丞王兢 佐尹皇甫魏光等來 進名馬及織成衣襖弓劍器甲等 賜絳等龍衣銀帶器幣有差.”

<책부원구> 권972 외신부 조공5 후주세종6년(959) “正月 高麗國王王昭 遣使臣王子佐丞王兢 佐尹皇甫魏光等來 進名馬及織成衣襖 弓劍 器甲等.”

<오대회요> 권30 주 현덕6년(959) “又遣其臣 王子佐丞王兢 佐尹皇甫魏光等貢名馬 織成衣襖 弓劍等.”

<고려사> 세가2 광종10년(959) “遣春佐丞王兢 佐尹皇甫魏光 周獻名馬 織成衣襖弓劍.”

<고려사> 세가2 광종13년(962) “遣廣評侍郎李興祐等如宋獻方物.”

<고려사> 세가2 광종16년(965) “遣大承內奉令 王輅如宋獻方物. 帝授輅尙書左僕射食賀封三百戶 并賜官誥.”

<고려사> 세가2 광종23년(972) “遣內議侍郎徐熙等如宋獻方物 帝制如王食邑賜推誠順化守節保義功號臣授熙檢校兵部尙書副使內奉卿崔業檢校司農卿兼御史大夫判官廣評侍郎康禮檢校少府監錄事廣評員外郎劉隱檢校尙書金部郎中亦賜官誥.”

후주와 관련된 복식기록은 광종3년(952) 후주에 방문한 고려사신 진참 등에게 衣服을 사하였다고 하는데, 광종2년(951) 후주 연호를 사용하였고, 3년(952) 방물을 가지고 遣使를 보내며, 4년(953) 후주에서 책봉을 받으니, 광종3년(952) 사신에게 하사한 의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연호사용에 대한 후주의 답례였다고 본다.

광종9년(958) 후주는 비단 수천필을 가져와 고려산 동을 무역해 갔다하고, 10년(959)에도 동 5만근, 수정 4천顆를 후주에 보냈다고 하는데, <고려도경>권23, 잡속2, 토산조에는, “고려 땅에는 금, 은이 적고 구리가 많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고려에서 생산되던 동이 품질 면에서 우수했고 매장량도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중국산 비단이 고려에 많이 유입되었다고 본다.

또한 광종10년(959) 명마, 직성의오, 궁검, 갑옷 등을 후주에 공물로 보낸 내용이 <고려사>, <책부원구>, <오대회요>에 기록되어 있는데, <책부원구> 외신부 포이편에는 견사 좌승 왕궁 등에게 龍衣·銀帶·器幣를 차등 있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북방에는 거란이 강성해지면서 947년 국호를 遼로 칭하고 남진정책을 실시하던 중에, 후주 세종이 燕雲 16주 중 瀛·莫 2주를 회복하면서 치열한 대치관계에 있었고, 고려 역시 태조 이후 반 거란정책을 펴고 있었다.

惠宗2년에 이어 광종10년(959) 후주에 말, 활, 검 등의 무기와 갑옷 등을 진공하였다는 것은 후주의 반거란 정책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혜종대에 고려가 진공한 갑옷을 보고 후진의 왕이 아름답다고 칭송한 것으로 미루어 고려의 갑옷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織成衣襖에 대해 좀 더 보자면, 채색실과 금실로 무늬를 넣어 짠 비단(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7)이 직성이라면 의오는 襖子 즉, 짧은 저고리로서, 혜종때도 후진에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段, 金銀五色線織成龍床褥二面을 진공하였다 하니, 고려산 직성이 土産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2. 경종대(976-981년) 복식기록

1) 전시과와 관련된 백관복식 기록

<고려사> 지32 식화1 경종원년(976) “始定職散官各品田柴科…官品高伍但以人品定之紫衫以上作十八品文班丹衫以上作十品 緋衫作八品綠衫以上作十品 殿中·司天·延壽·尙膳院等雜業丹衫以上作十品緋衫以上作八品綠衫以上作十品 武班丹衫以上作五品.”

경종원년(976) 10월에 관품의 高低를 논하지 않고 인품만을 기준으로 사색공복제에 의거하여 시정전시과를 제정하여 호족공신세력 뿐만 아니라 신진세력에게도 경제적 입지를 마련해 주었는데(전기웅, 1985), 이는 신구세력이 타협하여 정국의 안정을 모색하던 경종 초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당시의 지배계층 전체를 흡수해야 했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였다.

시정전시과를 살펴보면, 6품이며 10등급에 속하는 元尹 이상의 紫衫층이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원운 이상의 官階 소유자들은 관직자도

있었지만 散官으로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관계가 지급기준인 자삼층은 文班, 武班, 雜業의 구분 없이 지급하고 있었으며, 관직이 지급 기준인 丹衫, 緋衫, 綠衫층은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러나 10품 이하 자삼층은 단삼 문반층 1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관계가 없어도 고위직은 단삼의 상위 품에 편입되어 자삼층 하위직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 점차 관직이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김갑동, 2005), 호족공신 세력이 부활하긴 했지만 광종대에 진출한 신진관료층 또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왕의 측근이었던 殿中, 司天, 尙膳院 등의 잡업계층이 문반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김갑동, 2005).

또한 경종2년(977) 3월에는 개국공신 및 귀순 성주들에게도 훈전이 지급되었는데, 경종대 정계는 크게 과거제도를 통해 등용된 신진문신관료 세력과 광종대의 숙청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었던 호족 공신세력이 서로 대립하였으니(전기웅, 1985), 경종은 시정전시과와 훈전 등의 지급으로 양 세력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광종11년(960)에 제정된 백관의 공복제는 고려 관료로서 공인된 제도는 물론, 경종대에는 관료의 급료체계에도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하사품으로 사용된 복식기록

<고려사> 열전5 최지몽 경종5년(980) “景宗五年召還…賜銀器錦被褥帳衣馬幘頭犀帶, …一日知夢奏曰…王承等謀逆伏誅賜御衣金帶.”

<고려사절요> 2 경종원년(976) “御東池龍船親試進士 賜高凝等六人及第郎令釋褐.”

태조대부터 왕의 자문역할을 해 왔지만 광종대 실직한 최지몽을 경종이 소환하면서 공복을 상징하는 복두, 犀帶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복직을 의미한다.

경종이 진사를 親試하고 高凝 등 6인의 급제자들에게 그 즉시 釋褐을 명한 내용으로서, 왕

의 친시는 고려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경종은 태자 시절에 內議令職을 수행하면서 유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선대왕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유교경전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는데, 유학자들과의 연계가 경종2년(977)에 친시를 거행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친시는 경종2년(977)부터 행해졌는데, 친시 거행 직후 급제자들에게 평복을 벗도록 하고 공복을 하사한다는 것은 국왕과 급제자가 직접 座主·門生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서, 급제자와 국왕 간에 충성을 다짐하는 복종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노용필, 2001), 석같은 신진관료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맺으려는 경종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3) 송과 관련된 복식기록

경종대는 송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옥해>, <송회요>, <고려사> 등에 송과 교류 시에 복식기록이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해> 154 경종원년(976) “貢鬪錦漆甲白氈.”

<고려사> 세가2 경종2년(977) “遣王子朝宋獻良馬甲兵方物.”

<송회요> 8 蕃夷 7-1 경종2년(977) “貢馬甲兵方物.”

<옥해> 154 경종6년(981) “貢名馬鬪錦白氈弓劍.”

경종은 짧은 재위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년과 4년 두 번에 걸쳐 송의 책봉을 받았고, 2·3년에는 양국의 왕자가 서로 예방하기도 하는 등 광종대보다 송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송 태종(976-997)은 979년(경종4년) 연운 16주 회복을 위해 거란과 전쟁을 하지만 대패하였고 고려와 연합함으로써 거란을 견제하려 하였는데, 고려 왕자가 송에 말, 갑옷, 무기 등을 가지고 간 것은 송의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종대에 이어 경종대에도 송나라에 갑옷을 진공하였음을 볼 때, 당시 고려의 갑옷 제작기술이 뛰어났다고 추측되며, 고려시대 갑옷 제작

시 사용된 재료 및 형태, 구조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차후 연구로 미룬다.

또한 경종6년(981)에 고려에서 말, 궁검과 함께 鬪錦白氈을 보냈다고 하는데, 광종대부터 말, 무기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보낸 적이 있지만 다른 물건들은 토산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송의 문헌 <옥해>에는 계금백첩을 보냈다고 하고 있다.

먼저 鬪를 보자면,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는 “계는 氈으로 모직물의 일종인데, 조직이 촘촘하고 감촉이 부드러우며 난모나 겨울옷의 재료로 사용되며, 유목민족이 생산하는 것이 상품이다.”(周汎·高春明, 1996)라 하고 있어 섬세하게 짠 모직물로 추측된다.

신라 興德王대 신분별 복식급제에 眞骨大等の 表衣, 眞骨女の 內衣, 裊, 六頭品女の 袴, 內裳, 表裳, 내의, 半臂, 褙襦, 冑, 襪, 襪襪, 履, 五頭品女の 高, 내상, 표상, 반비, 배당, 褰袴, 말요에 계를 禁(유희경, 1980)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통일신라기 계는 진골복식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聖骨만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을 정도로 고급 모직물이었는데, 경종6년(981) 송에 공물로 보내고 있으니, 신라 후반과 고려 초 기록에 나타나는 계는 수입 직물이 아닌 토산직물이었을 추정을 해보며 좀 더 자료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錦에 관해 보자면, 금은 색사로 무늬를 넣어 짠 견직물로서 금과 같이 귀하다는 의미에서 금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신라 흥덕왕대 신분별 복식급제에 진골대등의 冑의, 纁두품녀의 高, 내상, 표상, 내의, 배당, 冑, 말, 말요, 오두품녀의 내상, 반비, 배당, 요반, 말요에 금(유희경, 1980)하고 있는 직물로 나와 있다.

계와 마찬가지로 금 역시 통일신라기 진골 복식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고급 견직물로서, 경종6년(981) 송에 공물로 보낸다는 것은 토산 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며 금 역시 좀 더 자료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백첩을 보자면,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는 “백첩은 氈, 氈으로 棉花이며, 세밀한 棉布라” 하니, 면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공양왕대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온 이후가 통념인데, 약 400여년 앞

선 경종대 백첩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본초장목>에는 “목면은 나무를 닮은 것을 고괘, 풀을 닮은 것은 고종이라 하며, 梵書에는 과, 영라과겹이라고도 한다.”하고, <중국의관복식대사전> 棉布에는 “綿布는 棉布, 棉花布라고도 하며, 木棉 혹은 草棉에서 얻은 포인데, 고대에는 白疊이라 하였고, 일반 백성들이 편복으로 지어 입는 직물이었다. 명대 송응성의 <천공개물>에는 ‘棉花는 고서에서 泉麻’라 한다.”(周汎·高春明, 1996)고 하며, <중국의관복식대사전> 泉麻에는 “시마는 牧麻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수컷 대마를 가리키며, 대마가 자랄 때 자웅그루가 각기 다른데, 열매 맺는 암대마는 저마, 숫대마 껍질로 만든 섬유를 시마 혹은 목마라고 하였으며, 고대에는 중요한 의복재료였다.”(周汎·高春明, 1996)고 하니, 경종대 송에 보낸 백첩은 麻의 일종이었다고 본다.

3. 성종대(982-997) 복식기록

1) 복식제정 관련 기록

성종대 원년부터 8년까지 백관의 공복과 군복, 일반백성 등 다양한 계층에 복식을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사> 지 39 성종원년(982) “令男子十歲以上着帽.”

<고려사> 열전6 최승로 성종원년(982) “百僚朝會一依中國及新羅之制 具公襪穿執 奏事之時着袜靴絲鞋革履 庶人不得着 文彩紗縠 但用紬絹.”

<고려사> 열전6 최승로 성종원년(982) “...其餘車馬衣服制度 可因土風 使奢儉得中 不必苟同...”

<고려사> 세가3 성종3년(984) 是歲 始定軍人服色.”

<고려사> 지26 지26, 관복 성종8년(989) “始定東西北面兵馬使 玉帶紫襟 兵馬副使 紫衣帶劍.”

<고려사> 지31 병마사 성종8년(989) “成宗八

年 置於東西北面 兵馬使一人 三品玉帶紫襟 親授斧鉞赴鎮 專制關外.”

먼저, 백관의 공복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성종 원년(982) 崔承老가 상소하기를 벼슬이 있어도 가난하면 公襪을 갖추지 못하고, 관직이 없어도 부유하면 綾羅錦繡를 입었던 당시 풍속에 대해 비판하면서 백관들이 조회시에 중국과 신라제에 의거하여 공란을 입도록 하고, 袜靴, 絲鞋, 革履 등을 신도록 할 것을 건의하면서 타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에 백관의 예복이 법식에 맞지 않아 창피 당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공란은 襪衫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대에는 백관과 士人들의 공복이며, 圓領袍 窄袖衣로 무릎 아래 부분을 절개해 橫襪을 대준 袍(周汎·高春明, 1996)로서, 신라제라 한 것으로 볼 때 김춘추가 당 제도를 도입한 후 襪衫을 공복으로 사용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림 1> 周文矩의 文苑圖 부분 중 襪衫 「中國人物名畫鑑賞 第一卷」 p.92.



<그림 2> 顧闳中的 韓熙載夜宴圖 부분 중 襪衫 「中國人物名畫鑑賞 第一卷」 p.88.

또한 타국 사신을 맞을 때, 백관복이 법도에 맞지 않아 창피를 당할까 두렵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광종대 백관공복이 제정되었지만 성종 즉위 시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고, 새 왕조의 기틀을 세우려는 고려의 중앙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었지만, 전체 고려사회로 볼 때는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남아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최승로의 백관공복 정비에 대한 제안은 유교적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써 수용,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년(984) 軍 服色과 8년(989) 동서북

면 兵馬使 복색제정을 알아보자면, 성종 초반 고려북방, 국경지대에는 여진인들이 자주 침입하여서 축성 책임자 刑官御事 李謙宜가 납치되면서 군사들이 도망갔고, 4년(985)에는 송이 거란지역이 된 연주, 제주지방을 회복하고자 고려에게 출병을 요청하는 등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은 군대기강을 확고히 하고, 국경지대를 견고히 하고자 군 복색과 동·서·북면 병마사의 복색을 제정하였으니, 이는 군대의 규격화·통제화(구산우, 2003)를 통해 국방과 왕권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10세 이상 소년에게 모자를 착용하고, 일반 백성들이 고급직물 紗, 縠을 금하고 紬絹만 착용토록 하고, 車馬衣服은 토풍을 따르라는 기록이 있으니, 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려사>에는 혜종이 10세에 왕태자로, 광종의 아들 주 역시 10세에 왕태자로 책봉되었는데, <고려사>권80, 지34, 진홀, 鰥寡孤獨賑貸之制에는 성종13년(994) 3월에 ‘어려서 고아가 된 아이들은 10세까지 관가에서 식량을 주고 10세 이상 된 자에게는 소원에 따라 거주할 것을 허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고려 초에는 10세 이상 된 남자를 성인으로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1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帽를 착용하게 하였는데 帽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전통사회의 유교적 의례중 하나인 관례가 고려 초부터 시행된 풍속이 아닐까 추측되며, 좀 더 자세히 고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최승로는 봉사문 제9조에, 백관의 공복을 중국제에 의거 정비할 것을 건의 하면서, 풍속·습관이 각각 그 지방 성질에 따라 다르니 차마의복제도는 토풍에 따르게 하여 사치와 검박을 적절하게 할 것이고 무리하게 중국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하면서, 자주적인 국내외관과 문물관을 표명하고 있다.

개위초기 최승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거의 대부분 수용, 시행하였다고 볼 때, 자주성을 잃지 않는 주체성이 태조의 자주적인 대외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성종대는 고려국과 왕권이 안정권에 들어가

는 시기로서 전 사회적인 제도를 유교적 국가의례정비와 함께 중앙과 지방조직을 개편하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완비시켜 나갔는데, 최승로의 복식관련 제안 역시 유교적 제도 정비였음을 알 수 있다.

2) 하사품으로 사용된 복식기록

성종대에는 다양한 관료에게 복식이나 직물 등을 사여하고 있는 기록이 많이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사절요> 2 성종5년(986) “其歸寧學生二百七人 可賜布二千四百匹 留京學生五十三人 亦賜幘頭一百六枚…”

<증보문헌비고> 87 최지몽 성종6년(987) “卒年八十一 訃聞 賜布千匹…”

<증보문헌비고> 5 최승로 성종8년(989) “八年卒… 賜布一千匹…”

<고려사절요> 2 성종8년(989) “…承演 可超九等 授國子博士 仍賜緋公服一襲 輔仁可賜公服一襲…”

<고려사> 세가3 성종9년(990) “折衝府別將趙英, 葬母家園, 朝夕祀之, …順興等五人, 擬授官階, 以揚孝道, 今差起居郎金審言等, 往彼, 賜穀人一百石·銀盃二事·彩帛布并六十八匹, 趙英超十等, 授銀青光祿大夫檢校侍御司憲左武侯翊府郎將, 仍賜公服一襲·銀三十兩·綵二十四匹.”

<고려사> 세가3 성종9년(990) “西京入流 年八十以上者優賞各有差 三品以上公服一襲 五品以上彩二匹·頭二枚…九品以上綵一匹·頭一枚…入流以上母妻年八十者 三品以上布一十四匹…五品以上布一十四匹…九品以上布六匹…庶人男女百歲以上者 令京官四品存問其家兼賜布二十四匹…九十以上布四匹…八十以上及篤疾者布三匹…”

<증보문헌비고> 82 성종15년(996) “熙患疾在開國寺 成宗駕幸問疾 以御衣一襲…”

앞에서 살펴 본 바, 광종·경종대에는 과거급제자에게 왕이 공복을 직접 하사하여 신진세력들과의 연계를 꾀하였지만 성종대에는 다양한 계층의 관료에게 공복을 사여하고 있는 점이 전대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성종은 원년을 제외한 매년 과거를 실시하고 교육에도 힘을 쏟아 전국의 주·군·현의 자제를 상경시켜 개경의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는데, 5년(986) 그 중에서 향수병으로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학생 207명에게 포 1천4백필을 하사하고, 학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복두와 쌀을 하사하였다.

8년(989)에는 교육 장려책의 하나로서 大學助教 宋承演과 經學博士 全輔仁에게 공복일습을 하사하면서 특별한 총애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니, 유교적 소양을 가진 과거출신 관료를 등용하여 유교적 정치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성종의 의지를 표현함에 있어 복식과 직물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

9년(990)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직후에는 대사면을 실시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모범이 되는 관료들에게 관직과 품계를 올려주면서 공복과 綵·彩帛·布 등의 직물을 하사하였고, 또한 북방지역의 송과 거란의 대치와 여진의 잦은 침입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하자 같은 해 서경을 방문하여 관리들에게 관복과 복두, 綵·布 등의 직물을 차등 있게 사여하면서 격려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종대는 국가와 왕권이 안정되어진 상황에서 왕, 백관, 백성 등이 연계를 이뤄나가는 고려의 사회상이 복식기록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송·거란과 관련된 복식기록

앞장에서 살펴본 바, 성종대는 원년에서 13년까지 13년간은 송과, 12년부터 16년까지는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송사>, <동국통감>, <중보문헌비고>등에 송·거란과 교류시에 복식기록이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사> 권487, 열전246, 외국 3, 고려 송태조9년 성종원년(982) “...遣使金全奉金銀線罽錦袍袴金銀飾刀劍弓矢名馬香藥來貢且求襲位.”

<송사> 권487 열전 246 외국 3 고려 성종8년(989) “治遣僧如可貴表來觀 請大藏經 至是賜之仍賜如可紫衣...”

<중보문헌비고> 권172, 교빙고 2, 성종11년(992) “遺以襲衣金帶金銀器數百兩 布三萬餘

端...”

<동국통감> 2 성종12년(993) “...熙留契丹營七日而還 遜寧贈...錦綺羅紈五百匹...”

먼저 송과의 관계를 보자면, 성종원년 사신을 송에 보내 성종의 즉위를 통고하였고, <송사>의 국열전에는 고려사신이 金銀線罽錦袍袴과 금은으로 장식된 刀·劍·弓·矢와 명마, 향약들을 보냈다고 하니, 금은선계금은 금과 은을 넣어 짠 금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와 금은 앞향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1년(992) 송이 비서승 진정을 보내 왕을 재 책봉하고, 고려는 襲衣·金帶와 金銀器 수백 냥, 布 3만 여단으로 답례하니, 11년(992) 송·거란이 대치관계에 있었고, 12년(993)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해로 국경지역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송이 고려왕을 재 책봉했다는 것은, 고려와 연합을 통해 거란을 견제하려는 외교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 또한 국경지역의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 송에 많은 양의 공물과 직물을 답례로 보냈으니, 송에 보낸 포는 고려토산 직물인 삼베였을 것으로 본다.

거란과의 관계 속에 보이는 직물에 대한 기록은 12년(993) 蕭遜寧이 1차 여·요 전쟁 시에 화의를 청하고 돌아가는 서희에게 錦綺羅紈五百匹과 낙타·말·양 등을 예물로 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거란에서 예물로 준 錦綺羅紈에서 錦은 앞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 장에서는 綺羅紈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羅를 보자면, “<設文> <爾雅>에서는 새 그물을 ‘羅’라 한다. <釋名>에서는 ‘文疏羅也’라 하여 밀도가 성긴 문양직을 나타내고 있다. <一切經音義>권2 에서는 ‘烏鋼曰羅’라 하니, 羅는 얇고 무늬가 있는 새그물과 같은 견직물임을 알 수 있다. <천공개물>에서 ‘中空小路 以透風涼’이라 한 것처럼 라는 무늬를 넣어 성기게 짠 얇은 비단직물을 가리키며 얇고 가벼워서 옷의 주재료로 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綺는 “亦称 ‘文綺’라 하는데, 기의 조직은 평직의 바탕에 능직으로 자카드 문양을 짜 넣은

비단으로, 기는 금과 비슷하지만 금보다는 얇고 흰색실로 짠 것을 기라 하여 채색실로 짠 금과는 실의 색에 차이가 있다.”(周汎·高春明, 1996)고 기록되어 있다.

紈은 “白色細絹. <釋名>에서는 ‘紈, 煥也, 細澤有光, 煥煥然也.’ <設文>에는 紈, 素也.”(周汎·高春明, 1996)라 하고, “정련하지 않은 생사로 만든 평직의 직물로, 조직이 비교적 치밀하였다.”(趙豐, 2005)고 기록되어 있다.

錦綺羅紈 모두 고급직물이며 거란에서도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광종대부터 경종, 성종대까지의 고려가 처한 국내외적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이 재위왕대별 복식제도 제정, 공복 사여 및 왕의 하사품, 외교관련 복식에 끼친 영향과 복식과 직물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종대는 호족들의 세력이 강성하였으므로,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 실시, 군제개혁, 백관의 공복제 제정 등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경을 皇都라 개칭하고 고려왕을 황제로 칭하였는데 이는 고려국 위상과 국제적 지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변화가 많았던 국제정세 속에서도 광종은 10년간 후주와 적극적인 교류를 펼쳐 귀화인 쌍기父子를 관리에 임명하였고, 고려서적을 후주에 보냈으며, 후주는 비단 수천필로 고려산 銅을 무역해 가는 등 다양한 물질적·인적·문화적 교류가 있었으며, 이후 11년 송을 건국하자 송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경종대는 즉위 즉시 내려진 대사면령과 복수 허용으로 호족공신세력이 회복되었으나 집정 왕선의 천안부원군 살해를 계기로 복수를 금하고 집정직을 좌우로 분리, 정치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같은 해 始定田柴料를 제정하여 전시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2년에는 훈전도 지급하여 호족세력과 신진세력 등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고 신진관료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경종원년 송의 책봉을 받은 이래 양국의 왕자가 서로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란과의 대치관계에 있던 송은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고려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종대는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인재를 양성하면서 거의 매년 과거제를 시행하여 신진인재를 발굴·등용하였고, 유교적 국가의례 정비와 중앙과 지방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완비시켜 나갔다.

성종 원년에는 송에 사절을 보내고 여러 차례 책봉을 받으면서 무역을 활발히 하여, 유교제례 관련도서 및 대장경 등을 송에서 가져오고, 왕빈, 최한 등이 송에 유학하여 관리에 임명되는 등 문화적·인적교류도 이루어졌으나, 12년 거란의 고려 침공 후 13년 송에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거절당하자 송과 국교를 단절하였으며, 15년 거란의 고려국왕 책봉 이후인 성종재위 후반에는 거란과 다양한 문화적·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둘째, 광종대 백관공복제정, 공복사여, 외교관련의 복식과 직물 종류에는 帛, 織成衣襖, 甲 등이 있었고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종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체계를 위해 제정된 백관공복제는 황제국을 지향하는 광종의 자주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왕이 과거급제자에게 직접 공복을 사여한 것은 신진관료들과의 연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며, 고려 초기 군신이 함께 참여하는 연회에는 공복을 착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종3년 후주가 고려사신 진참 등에게 衣服을 사한 기록은 그 종류는 알 수 없으나 연호사 용에 대한 후주의 답례였다고 보며, 광종9년 고려산 동과 후주의 비단 수천필로 무역하였다는 것은 당시 중국산 비단이 고려에 많이 유입되었다고 본다.

당시 후주와 거란이 치열한 대치관계의 상황에서 광종10년 명마, 직성의오, 궁검, 갑옷 등을 후주에 공물로 보내고 후주에서는 답례로 龍衣·銀帶를 주었는데, 광종 이전 혜종대 고려에서 진공한 갑옷을 보고 후진의 왕이 아름답다고 칭송한 것으로 미루어 고려의 갑옷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난 솜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광종대 織成衣襖의 특징을 보면 채색실과 금실로 무늬를 넣어 짠 비단으로 만든 짧은 저고리로서, 혜종때도 후진에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段, 金銀五色線織成龍床褥을 진공하였다하니, 고려산 직성이 토산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경종대 시정전시과 제정, 공복사여, 외교관련의 복식과 직물 종류에는 甲, 罽錦白氎 등이 있었고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대 사색공복제에 따른 전시 지급으로 사색공복제는 관료의 급료체계기준이 되었으며, 과거급제자에게 급제 즉시 왕이 직접 공복을 수여하는 등 신진관료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송과 거란의 긴박한 국외상황에서 송에 여러 차례 갑옷을 진공하였다.

송에 진공한 罽錦白氎의 특징을 보면, 섬세하게 짠 모직물인 罽는 통일신라기 진골 복식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고급 모직물이었고, 色絲로 무늬를 넣어 짠 錦 역시 진골 복식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고급 견직물로서, 신라후반과 고려 초 기록에 나타나는 罽錦은 수입 직물이 아닌 토산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며 좀 더 자료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白氎의 특징은 세밀한 棉布로 棉花布라고도 하며 木棉 혹은 草棉에서 얻은 布로써 일반 백성들이 편복으로 지어 입는 직물이며 棉花는 고서에서 臬麻라고도 하는데, 경종대 송에 보낸 백첩은 麻의 일종으로 만든 직물이었다고 본다.

성종대 백관공복제 정비와 군 복색 제정, 공복사여 및 하사품, 외교관련의 복식과 직물 종류에는 金銀線罽錦袍褥, 布, 錦綺羅紈 등이 있었고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대는 백관공복이 광종대 제정되었지만 성종 즉위시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중국제에 의거 정비하였으니, 이때의 공란은 襪衫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군 服色과 병마사의 복색을 제정한 것은 군대의 규격화·통제화를 통해 국방과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고 보며, 1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帽를 착용토록 한 것은 전통사회의 유교적 의례 중 하나인 관례가 고려 초부터 시행된 풍속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승로의 복식관련 제안 역시 유교적 제

도 정비의 일환으로써 차마·의복제도는 토풍에 따르고자 한 최승로의 건의를 성종이 대부분 수용, 시행하였다고 볼 때, 자주성을 잃지 않는 주체성이 태조의 자주적인 대외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성종은 다양한 계층 관료·백성에게 公服, 幘頭, 綵, 彩, 帛, 布등을 수여하여 왕, 백관, 백성 등이 연계를 이뤄나가면서 왕권강화를 하고자 하였으며, 유교적 정치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성종의 의지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복식과 직물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고 본다.

성종대 고려는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 송에 많은 양의 공물과 직물을 답례로 보냈는데 고려가 송에 보낸 金銀線罽錦袍褥의 특징은 금과 은을 넣어 짠 금직으로 만든 袍·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에 보낸 많은 양의 포는 고려토산 직물인 삼베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거란에서 예물로 준 錦綺羅紈의 특징은 고급 견직물로서 錦은 색사로 무늬를 넣어 짠 견직물, 羅는 무늬를 넣어 성기게 짠 얇은 견직물, 綺는 금보다는 얇고 흰색실로 짠 견직물, 紈은 생사로 만든 견직물로서 거란에서도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고려내의 통합과 안정이 점차 이루어지는 광종대부터 성종대는 재위왕들이 국내적으로는 통일왕조를 존속시켜 나가기 위해 왕권강화와 유교적 중앙집권체제를 완비시켜 가는 과정에서 제도정비와 제정, 신료·백성과의 연계와 소통을 위해 복식과 직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긴장의 연속이었던 중원과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 활동 과정에도 복식과 직물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은경. (1999). 고려시기 향리 공복제. *한국사상과 문화*, 4, 115-150.
- 고승남. (2002). *고려초기의 지배체제 정비와 최승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산우. (2003). 고려 성종대 정치세력의 성격과

-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91-148.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4). *한국사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김갑동. (2005). *고려전기 정치사*. 서울: 일지사.
-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기. (1999). *고려시대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연주. (1999). *고려시대 복식금령과 그 성격*.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2009). *고려전기 관복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96). *고려시대 지장보살도의 복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인국. (1999). *고려중기 정치세력 연구*. 서울: 신서원.
- 노용필. (1998). 고려 경종초 복수허용의 사상적 기저. *한국사상사학*, 11(1), 137-152.
- 노용필. (2001). 고려 경종초 개혁정치와 그 추진 세력. *진단학보*, 91, 29-52.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7). *漢韓대사전 10*.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박경선, 정원복. (편). (1992). *북역고려사*. 서울: 신서원.
- 박순지. (1987). *고려시대의 직물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운. (1991). *고려시대사*. 서울: 일지사.
- 박진아, 조우현. (1997). 고려사절요의 복식에 관하여 1.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3.
- 백승호. (2006). *고려와 송의 무역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옥경. (1992). *고려시대와 송대의 관복비교연구 -공·상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영식. (1983). *한국사학사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안정희. (2004). *원간섭기 고려왕의 대원정책과 복식정책의 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 (2011). *고려말 원간섭기 복식문화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우원. (2002). *고려시대 직물에 나타난 주변국가와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명선. (2007). *고려불화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기. (1995). *광종대의 왕권강화와 통치체제에 대한 일고*. *전주사학*, 3, 53-54.
- 유희경. (1974). *고려복식에 미친 중국복식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집*, 23, 211-240.
-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은영지. (1986). *고려전기 향리신분과 복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란영. (편). (1968). *한국금석문追補*. 서울: 아세아출판사.
- 이민정. (2002). *고려초기 태묘 제례복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해. (2001). *주변국가를 통해 본 고려시대 전중기 관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해. (2011). *고려시대 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경화. (2006). *고려초 공복제 도입과 복색운용에 관한 연구*. *복식*, 56(1), 131-142.
- 임경화. (2008). *고려초기 공복제도의 특수성과 내적의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명미. (1992). *고려왕조대 남송, 금제를 병용한 100 여 년간의 복식(A.D. 1142 - 1224)*. *복식*, 18, 49-59.
- 임명미. (1993). *고려왕조대 고려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 *복식*, 20, 31-47.
- 전기웅. (1985). *고려 경종대 정치구조와 시정전시과의 성립기반*. *진단학보*, 59, 29-59.
- 정국진. (2006). *고려불화에 표현된 문양의 조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숙. (1988). *고려왕실 족내혼 연구*. 서울: 새문사.
- 조효숙. (1992). *한국 견직물 연구-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미령. (2001). *고려후기 조선전기 지장보살도의 복식변천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혜원. (2011). *고려불화 복식에 표현된 문양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금석. (1987). *고려불화에 나타난 고려복식의 고찰 형태와 구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영.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金富軾. *三國史記*.
- 金宗瑞, 鄭麟趾. *高麗史*.
- 金宗瑞. *高麗史節要*.
- 徐居正. *東國通鑑*.
- 洪鳳漢. *增補文獻備考*.
- 歐陽修. *新五代史*.
- 張昭遠, 賈緯, 趙熙. *舊唐書*.
- 徐兢. *高麗圖經*.
- 薛居正. *舊五代史*.
- 王溥. *五代會要*.
- 王應麟. *玉海*.
- 王欽若, 楊億. *冊府元龜*.
- 李時珍. *本草綱目*.
- 脫脫. *宋史*.
- 李之昕. (編). (2002). *中國人物名畫鑒賞 第一卷*. 北京: 九州出版社.
- 趙豐. (2005). *中國絲綢史*. 北京: 文物出版社.
- 周汛·高春明.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冊出版社.